광주 보훈병원 이용자 진료 기다리다 병난다

의료진·시설 부족 … 치과·대장내시경 50일 대기

광주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의료진과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제때에 진료와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보훈병원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52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62일 부산 42일, 대구 35일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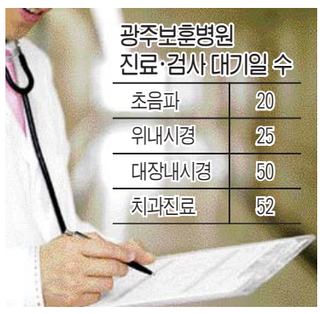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 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전국 5개 보훈병원(광주,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2007~2009년 2월 사이 접수된 6천900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동일 규모의 일반 병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주보훈병원에서는 보훈 대상자가 일반 병원에선 초진 후 당일이나 다음 날 검사가 가능한 초음파 검사를 원할 경우, 20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도 일반 병원에서는 10일 정도 기다리면 되지만 보훈병원에서는 50일 정도를 대기해야 한다. 내과의 일반화된 검사 항목인 위내시경도 일반 병원에서는 1~2일이면 충분하지만 보훈병원에선 25일이나 참아야 한다.

또 광주보훈병원 피부과와 내분비내과의는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60명 내외의 환자를 진료해 일반 병원에 비해 50% 가량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진료와 검사가 적체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훈등급에 따라 전액 무료 또는 30~60%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보훈 대상자들은 진료일수(입원+외래+투약 일수)가 연간 수천일을 넘는 등 의료 이용 오·남용 대상자가 많은 것도 진료 서비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진료 대상자와 검사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설·장비는 제한돼 있고, 의사 및 검사 의료진은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첫 '푸드마켓' 개장

오치동·쌍촌동에 … 저소득층 기부식품 공급

저소득층이 언제든지 찾아가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는 푸드마켓이 북구와 서구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마켓을 북구 오치종합사회복지관과 서구 쌍촌종합복지관에 4억5천만 원을 들여 마련하고, 26일과 다음달 2일 잇따라 문을 연다.

푸드마켓은 기존의 식품이나 도시락 배달 등과 달리 이용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기부식품을 배분해 주는 푸드뱅크 14곳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탁받은 식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해 수요자가 원하는 식품을 필요로 할 때 즉시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푸드뱅크에서는 주로 캔류, 장류, 라면 등 공산품 위주 식품을 주로 다뤘으나 푸드마켓에서는 신선식품, 빵, 학교급식소·대형식당의 여유식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자들은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중 1곳만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별로 1곳씩의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대형마트와 아파트단지, 재래시장 등에 식품 기탁을 받는 등 시민들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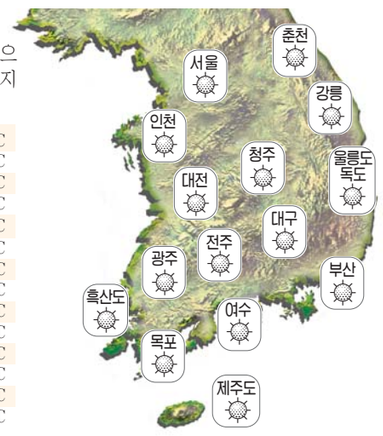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0분 해짐 19시 51분 달뜸 09시 02분 달짐 22시 37분

불볕더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맑 음	20/33℃
목 포	맑 음	20/30℃
여 수	맑 음	21/29℃
완 도	맑 음	18/31℃
구 례	맑 음	19/34℃
해 남	맑 음	17/31℃
장 흥	맑 음	17/32℃
고 흥	맑 음	17/32℃
순 천	맑 음	20/32℃
영 광	맑 음	18/31℃
진 도	맑 음	17/31℃
전 주	맑 음	19/33℃
남 원	맑 음	16/33℃
흑산도	맑 음	19/26℃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2.0m

	밀물	썰물
목포	04:52 16:55	10:00 22:03
여수	11:37 --:--	05:32 17: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토)	28(일)	29(월)	30(화)	7/1(수)	2(목)
날 씨						
최저/최고	21/31	23/30	22/28	22/28	22/30	21/30

조선대생 250명 "농활 떠나요" 조선대 학생 250명은 25일 대학내 1·8광장에서 '농촌봉사활동 출범식'을 가진 뒤 나주와 강진, 구례 등에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전남대 학생 350명도 이날부터 화순·영암·해남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떠났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남대 연구역량 세계 수준급

SCI급 논문 484위

전남대 연구역량이 세계 최상위 수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은 최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발표된 SCI급 학술 논문 저자들의 소속 기관은 약 40만개에 이르며 이중 전남대는 6천462건, 484위로 세계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유일하게 세계 100위 안에 들었으며 연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포스텍이 상위 0.1%인 400위 안에 포함됐다.

또 전남대를 비롯한 부산대, 인하대, 충남대는 세계 순위 500위 안에 들어 상위 0.1% 이내 포함 예상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SCI급 논문 발표 건수와 피인용 횟수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발표 건수는 2003년 7만9천560건에서 2009년 14만4천436건으로 연평균 10.4% 늘어났고, 피인용 횟수는 2003년 19만8천780회에서 2009년 50만9천383회로 연평균 17.0%가 증가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세계 대학의 상위권 순위는 거의 변화가 없다. 2~3단계 정도는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순위 도약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며 "그만큼 대학 세계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인사

승진 53명·전보 152명

전남도교육청은 25일 승진 53명, 전보 152명 등 지방공무원 205명에 대한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6면〉

이번 인사에서 최원섭 시설과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나주공공도서관장에 임명됐으며, 김기정 시설과 설비담당은 4급인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시설과장에 발령됐다.

또 조홍석 완도고 행정실장과 정태옥 여수 충덕중 행정실장 등 5명은 사무관(5급)으로 승진 발령됐고, 이병수 의회담당은 기획예산과 정책개발담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10명이 전보됐다.

6급 이하는 46명이 승진하고 142명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 밖에 김성철 나주공공도서관장과 시설과 소길영 사무관 등 5급 이상 5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공서열, 격무부서 근무 등을 감안해 승진자를 결정하고 능력과 전문성 등을 참작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